

협회소식

산업기능요원 배정을 위한 추천 제도 설명회 개최

협회는 지난 7월 9일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에서 우주정보통신등 162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2000년도 정보통신분야 산업기능요원 배정을 위한 추천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정보통신부와 우리 협회,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병역지정업체 추천제도는 정보통신부에서 제시된 배점기준에 따라 병무청에 추천하고, 병무청에서 최종적으로 배정인원 및 지정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추천대상 업종은 정보통신기기 제조업 분야와 정보처리 관련업으로 나뉘게 되는데, 정보통신기기제조업에서는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컴퓨터 제조업, 컴퓨터 기억장치 제조업, 컴퓨터 입출력장치 제조업, 달리 분류되지 않는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제조업, 유선통신장치 제조업, 무선통신, 방송 및 응용장치 제조업이며, 정보처리관련업에서는 컴퓨터설비 자문업,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원, 자료처리업, 데이터 베이스업, 기타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이다.

교부 및 접수기간은 '99. 7. 10~8.10 까지이다.
(문의: 과제관리팀 안광학 팀장580-0576~7)

Y2K인증센터, 삼성 LG 등 19개 업체에 Y2K인증서 수여

협회 부설기관인 한국Y2K인증센터는 지난 7월 2일 삼성전자, LG전자 등 19개사에 Y2K 인증서를 수여했다.

이로써 Y2K인증 획득기업은 대기업 50개, 중기업 9개, 소기업 3개, 공기업 2개 등 총 64개로 늘어났으며 업종별로는 금융·보험 14개, 전기·전자 15개, 건설 9개, 석유·화학 6개, 정보통신 4개, 운송·물류·무역 4개, 의료 2개, 기타 8개, 정부투자 2개 기관이 각각 인증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Y2K인증센터는 인력과 시간때문에 Y2K 문제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Y2K 해결 및 인증획득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제1차 정보통신 벤처창업 경진대회 --1차 선발 발표

협회는 지난 6월 26일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

에서 제1차 정보통신 벤처창업 경진대회 참가 작품중, 이만재 교수 등 27명의 분야별 심사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멀티미디어 콘텐츠, 정보통신 서비스, 일반패키지 소프트웨어, 기기 및 부품 등 4개 분야를 각각 선정했다.

총 466편 중 멀티미디어 콘텐츠 분야는 81편 중 20편, 정보통신서비스 분야는 177편 중 32편, 일반패키지 소프트웨어는 94편 중 31편, 기기 및 부품은 114편 중 39편으로 총 120편을 각각 분야별로 선발해 지난 6월 30일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2차선발은 9월, 최종선발은 10월에 있을 예정이다.

벤처창업 경진대회는 창의적 벤처창업 아이디어의 발굴 및 사업화지원, 창업교육 등을 통해 정보통신 벤처창업붐을 조성하고 신규고용 창출 기여와 정보통신 벤처창업 경진대회를 통하여 효과적인 창업계획 작성 모델을 제시하고 철저한 사전 사업계획의식을 확산시킴으로써 벤처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한국Y2K인증센터, Market Partners와 전략적 제휴 체결

협회 부설 한국Y2K인증센터는 지난 6월 28일 미국의 최대 Y2K 금융기관 전문컨설팅 기관인 Market Partners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Market Partners는 금융전문가, 소송전문 변호사, 경영컨설턴트, 정보기술 및 경영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관으로, 97년 10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Y2K 솔루션 업무를 시작한 이래, Y2K 문제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 및 업무를 개발, 제공해 오고 있다. 이번의 전략적 제휴에 따라 양기관은 미국내에 있는 한국 금융기관의 Y2K 문제해결을 위해 Y2K 대응절차 및 결과평가, 정보교환 등에 상호 협력하게 된다.



한편, 한국Y2K인증센터는 지난 2월 세계 최대의 정보기술 진단 자문기관인 Gartner Group과 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

(문의: 한국 Y2K인증센터 전성태 팀장

T: 582-0100)

제63회 이사회 개최

협회는 7월 1일 타워호텔 로즈룸에서 제63회 이사회를 열고 '9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사업 계획 등을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재적임원 29명 중 17명이 참석한 이날 이사회는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지원국 김창곤 국장의 정보통신 서비스 현황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이 있는 뒤 정장호 회장의 성원보고 및 개최선언으로 시작되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제61회 및 제62회 이사회 의사록 보고안건 과 '99년도 수정예산(안) 편성의 건의 부의안건이 통과되었고, 곧바로 '9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 사업 계획이 보고됐다. 또한 정장호 회장의 요청에 따라 한국Y2K인증센터 운영현황 및 추진식적도 보고되었다. 이밖에 협회 포럼 구성 운영, 방안이 보고되었다.

제6회 멀티미디어 기술대상 시상식

협회는 6월 3일 한국경제신문사 다산홀에서 김종필 국무총리, 남궁석 정보통신부 장관, 박용정 한국경제신문 사장, 정장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회장, 한계섭 심사위원장과 수상업체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멀티미디어 대상 시상식을 열었다.

멀티미디어 기술대상은 정보화 시대에 국가 경쟁력의 핵심요소가 되는 멀티미디어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장려와 멀티미디어 산업의 진흥과 이용 촉진을 위해 제정된 상으로, 올해로 제6회를 맞았다.

한 기술개발 장려와 멀티미디어 산업의 진흥과 이용촉진을 위해 제정된 상으로, 올해로 제6회



를 맞았다. 이번 시상식은 작년에 이어 우리 협회와 한국경제신문사가 공동 주최하고 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열렸다.

시상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분	업체명	제품명	
대통령상	LG전자	LGE60" Color PDP	
국무총리상	원컴소프트	다빈치 CDMA 단말기용MSM	
정보통신부장관상	H/W부문	삼성전자	포토뱅크 멀티미디어
	S/W부문	포토뱅크 멀티미디어	포토뱅크프로3.0
	컨텐츠부문	터보테크	CNC 가동 및 코드교육 프로그램
한국경제신문사사장상	조세통람사	이나우스DB99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장상	아리수미디어	타이핑마법사	

IEEE1394 분과위원회 제5, 6차 회의(세미나) 개최

협회 멀티미디어 협의회 IEEE1394 분과위원회는 지난 4월 29일과 5월 26일 두 차례에 걸쳐 경원대학교 세미나실과 대우센터 대회의실에서 각각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먼저, 제5차 회의에서는 분과위원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일상 선임연구원의 'IEEE1394 Solution & Applications', 서호선 심사관의 'IEEE1394와 특허료 문제', 그리고 전호인 위원장(경원대 교수)의 IEEE1394 기술, 제품의 실질적 협의를 위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삼성, 대우 LG전자의 ION(상호운용성) 참가 협회에 이어 신규가입 회원사인 (주)아라리온의 신제품 개발 소개가 있었다.

제6차 회의에서는 협회 손용기 부회장의 인사말씀을 시작으로 5차 회의내용과 관련하여 심

분실단말기 신고센터 경품전달식

협회 분실단말기 신고센터는 지난 7월 6일 손용기 상근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협회내 부회장실에서 분실단말기 경품 전달식을 갖고 당첨자들에게 경품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서 1등에게는 현대자동차의 EF소나타를, 2등에게는 금강산 이용권을, 3등에게는 SPH-7100 핸드폰을 각각 전달했다.

협회는 앞으로도 경품행사를 정기적으로 마련해 분실단말기 회수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



도 깊은 논의가 있었다. 전호인 위원장의 '통신위성을 이용한 3D TV 방송시스템의 개요 및 IEEE1394 응용', 최일상 선임연구원(대우전자)의 'IEEE1394 S/W Stack for Consumer A/V Devices', 성관수 선임연구원(삼성전자)의 'WG on 61883 CMP Clarification' 제안, 서호선 심사관(특허청)의 'Joint Licensing Program of the IEEE1394 digital Interface'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특히 세풍물산에서 'USB/ IEEE1394 Development & Test Tool'의 전시, 시연이 있었다. 이번에도 창남전자 등 신규가입 6개 회원사 연구개발 책임자의 자사 소개는 IEEE1394에 대한 산업체의 현황과 이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다. 이로써 IEEE1394 회원사는 7월 현재 98개사(기관/교) 168명으로 늘어났으며, 협회 조사연구실 멀티미디어팀에서 이에 대한 기획과 운영을 맡고 있다.